

주님 승천 대축일 복음 나누기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르 16,15-20
-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15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잡아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서 부록(16,9-20)의 결말에 해당합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한 사람들로 마리아 막달레나(9-11절), 두 명의 제자(12-13절) 그리고 열한 명의 제자가 소개됩니다. 이 명단은 바오로가 1코린 15,3-8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의 세세한 사항을 보고하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부활 신앙은 생생하고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박해 안에서도 흠어지지 않고 나날이 성장하는 공동체는 부활의 진리에 대한 생생한 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한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믿는 이들에게 따르는 몇 가지 표징을 말씀하십니다.(17-18절) 믿는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도 모르게 삶을 망치게 하는 악의 힘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귀의 현존 대신에 하느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서로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 자신을 사로잡는 악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믿는 이는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언어이기에 듣는 사람들을 향기롭게 합니다.

믿는 이는 손으로 뱀을 잡아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독의 해를 물리친다는 것은 '혀'와 관계됩니다.(로마 3,13-14 참조) 적당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통제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믿는 이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한테서 떨어져 하느님께로 올라가십니다.(마르 16,19) 예수님의 승천은 시편 110,1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느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로써 전능한 권한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테파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실제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사도 7,55-56)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처럼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사도 1,9-11; 루카 24,51 참조) "그곳에 계시는 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것을 당신의 기억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는 당신의 신앙고백에 충실하게 머무르십시오."(아우구스티노)

주 예수님께서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마르코복음 16,20에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분은 이제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현존하는 당신의 부활한 몸인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십니다. 오늘 제2독서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지닌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에페 2,6)

※ 목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